

시 김봉숙

멀구슬나무꽃이 필 때

-아버지 기일에

보랏빛 노랏소리
앞동산 마을 길 여기저기에 터지는데
아무런 꽃내음 오지 않는다

멀구슬나무는
꽃이 질 때 향기 난다

당신은
해도 뜨기 전 들녘 한 바퀴 돌아
흐르는 땀방울에 부지런히 꽃향기 묻혀 왔지

그렇듯
가시는 길엔 온 동네 멀구슬꽃 내음이 났지

당신처럼
내 가는 발걸음
잊혀질 뉘모습에도
멀구슬꽃 향기 한 줄기 남길 수 있을까

아버지 다녀가신 듯
저녁 꽃향기 바람결에 스친다

약력

- ▲ '문예사조' 시 등단
- ▲ 시집: '누군가 부르지 않아도'
- ▲ 디카시집: '갯마을 오후'
- ▲ 광주문인협회 이사
- ▲ 시낭송가, 사진작가



시 김선일

고사리

고요한 산사 여울
봉긋이 옛된
조막손

졸졸졸
길섶 자락
연두 새초롬

소곤소곤
낮가림인양
가녀린 기지개

새집데기
작은 방울 내려와
가만가만 새악시 불

약력

- ▲ 부산문학 등단, 부산문학 시부문 신인문학상
- ▲ 광주문인협회 상임부회장, 부산문학협회 수석부회장
- ▲ 한국신문예문학회 부회장, 전국지역신문협회 환경과학분과위원장
- ▲ 수상: 부산문학협회 시문학 대상, 코리아문화예술 대상
- ▲ 공학박사, 전 조선이공대 교수, 목포대 공대 교수
- ▲ 시집: '별아 바람아'



시 이예성

이 나이 먹고서야

얼마전 식탁에는
예쁜 꽃병 놓이더니
지금 나의 식탁 위에
온갖 약병 줄을 서네

왜 몰랐던가
꽃 피는 봄이었나 생각하면
아유 답다 외치는 날 되고
그냥 단풍이 유혹해요

머지않아 폭풍 한설 내게와
옷깃을 여밀 때
서서히 종착역으로 걸어간다
그래 위선자 되지 말고
힘들어도 정도로 살아갈래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봉사하며
축복 속에 거듭나는
어차피 거둔 들고 온 것을
이 나이 먹고서야 깨달으니

약력

- ▲ 문예지 추천위원장
- ▲ 호남시조시인협회 부회장
- ▲ 호남매일신문사 편집, 논설위원(전)
- ▲ CNN방송 공동대표(전)
- ▲ 패션모델 교수 위촉



수필 정성현

극락강에 대하여

세 번째 절기 경칩(驚蟄)을 넘어서 찾아온 꽃샘추위 때문인지 모처럼 약속이 없는 휴일이다. 오후 들어 햇살이 고개를 내미니 역마살이 도지며 쯤이 살짝 쭈서 산책을 하기로 했다. 봄의 기운이 감돌지만, 겨울을 막 벗어난 지금은 소나무와 독일 가문비, 측백, 동백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곤 아직 모두 얼음이다. 그래서 냇가의 풍경은 더 절망적이다. 다만 물 위로 떠 지어 노니는 청둥오리와 철새들의 날갯짓이 그나마 황량한 광주천의 겨울 도화지에 그려지는 소박한 그림이다.

길게 뻗은 광주천을 건너다 극락교에 다다라야 문득 내가 걷는 이곳은 영산강인데 왜 극락교라 불릴까 궁금해진다. 그리고 극락강

이라는 지명은 수없이 들었는데 아직 극락강을 보지 못해 극락강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합쳐지는지 궁금해진다. '극락'은 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사는 정도, 괴로움과 걱정이 없는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이며 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 억 불토(佛土)를 지난 곳에 있다고 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을 가듯이 극락강을 건너야 극락(極樂)을 간다면 절과 관련이 있는 지명일까 생각해봤는데 주변에 절이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극락'이라는 멋진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해진다. 한 시간을 걸어왔으니 다리가 빠르다. 피곤한 다리도 쉴 겸 잠시 앉아 스마트 폰으로 검색을 해본다. 나무위키에 극락강을 검색하니 영산강으로 키워드가 뜬다. 그리고 영산강에 대한 그 유래와 행정적 설명이 비교적 소상하게

나와 있다. 극락이 대표적 지명으로 불린 것은 조선 시대 때부터였다. 내가 수없이 들었던 극락강은 결국 영산강(138.75km)이 진짜 이름인데 극락강이란 곳(광산구 신가동)에 사는 사람들이 영산강을 극락강이라 불렀고 서구 유덕동에는 극락 초등학교가 있어 근처에 분명히 극락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곳의 지형은 담양군 용면 영연리 가막골 용소(龍沼)에서 흘러나온 물과 무등산 장불재 아래 샘골에서 시작되어 용추로 흘러 광주천을 지나며 넓은 평야를 만들어 마을이 형성되었고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조선 시대에 한양을 가던 사람들이 묵어가는 극락원이라는 숙소가 존재하였기에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렸을 적 학다리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오는 도중 극락강역에 열차가 서면 앞에 강이 흐르

고 있었기에 나는 지금까지 잊지도 않은 극락강의 존재를 믿었다. 극락강역은 약 100년 전(1922년)에 생겨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작은 간이역으로 유명하다. 극락이라는 지명은 194년 극락면으로 불리다 지금은 광산구 신가동으로 불리는 곳이다.

극락교 아래의 벤치에 앉아 저쪽 자전거도로를 바라보는데 한 젊은 엄마와 어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머리에는 헬멧도 썼고 복장이 제법 그럴듯하다. 그런데 앞서가던 아들이 엄마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 했는지 갑자기 뒤를 돌아보다 핸들이 꺾이면서 넘어지고 만다. 뒤따르던 엄마가 놀라 하며 타던 자전거를 버리다시피 내던지고는 아들에게로 달려간다. 다행히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곧바로 일어난다. 어른들이 저렇게 넘어졌으면 얼른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아이들은 넘어져도 "땀이 받아준다."라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과잉 영양 섭취로 몸이 비만하여 느릿느릿 나무늘보같이 운동을 싫어하고 전자게임기를 가지고 노는데, 30대 후반의 엄마가 좌충우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였다. 하늘이 내려주고 땅이 받아준 아이와 젊은 엄마가 추억을 공유할 자전거 타기를 함께하고 석양을 받으며 멀어지는 모습이 아름답고 따뜻하게 내 마음에 다가왔다.

약력

- ▲ 광주문인협회 이사
- ▲ 광주수필문학회 회원
- ▲ 서석문학회 회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